156 156 455 455 455 11815 156 156 455 454 455 455 455 1564 1584 153 7580 맞은당은 우리기를 일찍한 148

기와하는 강화한테 높고 구름없이 밝은말은 우리가는 일본인상임에 무급히 성한리 화려강한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시앙하네. 유무공회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가상 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

기울하는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이 밝은달은 우리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회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

이 가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워나 나라시랑하세

무궁화 삼촌의 회약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미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면세.

무장의 삼촌의 회약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잔하세.

남은 위에 저 소나무 절을 두른듯 바람서의 불변함은 우리 방 일세

무장화 삼천의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보전하네.

기울들 공호테 높고 구름없이 밝은달은 우리가슴 알면난임에

무장의 심천의 회약성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보면서!

이 가장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듬며 고토우나 즐겁다 나타사랑

무료하 심천의 회약장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보전하네.